

광주 '감기 항생제 처방' 전국 최고

평균 63.91% ... 광산이비인후과는 98%

항생제로는 치료 안돼 오남용 등 부작용

■시·도별 목감기 항생제 처방률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항생제 처방률	58.48	58.02	59.27	61.14	63.91	57.88	60.93	62.6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생제 처방률	59.07	63.57	57.45	52.15	58.18	60.08	61.57	5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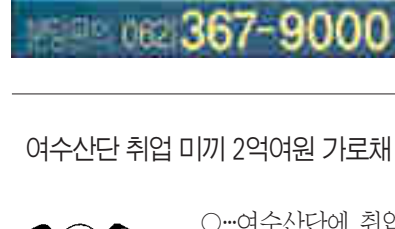
광주시내 병·의원들의 목감기(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處方率)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의원에 제출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광주 시내 병·의원들의 목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63.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3.57% ▲경

기 62.67% ▲경남 61.57% ▲대구 61.64% 순이었으며, 전남은 58.18%를 기록했다. 광주시 광산구 광산이비인후과의 경우 목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98.38%로 전국 1만2천329개 병·의원 중 12번째로 높았다. 내원(來院)한 대부분의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셈이다. 반면 광주시 남구 하나연합의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0.22%였다.

하지만, 항생제 투여로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할 수 없는데다, 오남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해 무분별한 처방을 막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현대가정의학과 조항훈 원장은 "감기의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죽지 않는데다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항생제 처방이 별 의미가 없다"며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무엇보다 '내성'을 가져와 점점 고단위 항생

제를 써야 하고,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병에 걸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 범위가 줄어들어 의료비도 많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60.70%로 전문요양기관(45.85%), 종합병원(48.40%), 병원(50.80%)에 비해 감기 항생제 처방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960) 김홍두



5·31 선거법위반 조사 전남 단체장 줄소환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6일 이정섭 담양군수를 소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조만간 유두석 장성군수를 소환해 '민주당 당내경선에 참가한 후에도 다시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참가해 당선된 점 등은 무효'라는 진정서와 관련한 조사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25일과 이 날 강종만 영광군수를 소환해 유사 선거사실 운영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달까지는 이들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의원 김상봉·서구의원 나정숙 법원, 당선무효형 선고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상봉 의원과 광주 서구의회 의장 나정숙 의원 등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상봉(37·나주 제2선거구)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점포와 가구 등을 호별 방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전문서를 통해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서구의회 의장 나정숙(49)의원에 대해 역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을 이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관위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선거일이 임박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만건을 발송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현섭 여수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교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해광)는 26일 유사 선거사실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56) 여수시장에게 원심이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선거사실을 열어 정당활동을 벌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정치 신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부지했던 점 ▲불린 명함의 수가 적은 점 ▲선거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두고 병행한 점 ▲개인 지지를 호소한 표현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병원 비싼약 처방 최다

국감 자료, 병실료도 부산대병원의 2배

전남대 병원이 전국 9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고가약(高價藥) 처방을 가장 많이 하는데다, 병실 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 병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복심(열린우리당)의원에 제출한 '국·

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전남대병원의 약 처방 품목 중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4.01%로 전국 9개 국립대·확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대병원(62.47%) ▲경상대병원(61.70%) ▲충남대병원

(59.32%) 순이었고, 경북대병원이 45.42%로 가장 낮았다. '고가약'은 성분·제형·함량이 같은 3종류 이상의 등록 약품 중에서 최고가인 약을 말하며, 의료진전국에서 고가약 처방비중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性分名)처방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장봉수(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특실 병실료는 30만5천800원으로 부산대병원(18만6천640원)에 비해 1.63배 비쌌다. 3인실 병실료 역시 9만8000원으로 부산대병원(4만8천640원)보다 1.86배 높았다. 또 전체 288병실 중 특실·1인실은 모두 66병실(22.9%), 2인실 92실(31.9%)로 3인실 이상 병실(130실·45.1%)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특실과 1·2인실 비율이 3인실 이상 보다 높다는 것은 다수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단적인 지표"라고 지적했다. /서민정기자 viola@

10·25 재·보선 사범 전남경찰 17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10·25 재·보선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온 선거법 위반사범 17명(7건)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3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유권자 37명에 1인당 200만원씩을 총 7만4000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신안군 암태면 유권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특정후보 지지자 엄모(여·40)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문화창의산업전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에 참가한 '리빙TV'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말타기를 하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시 외에도 포럼, 스타리그 8강전 게임대회, 스페셜 음악공연, 아티 영화시사회 등이 30일까지 계속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수산단 취업 미끼 2억여원 가로채

○여수산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초등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검찰에 달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장모(32)씨는 지난해 8월 여수의 한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여·33)씨에게 "남편과 동생을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2억7천900여만원을 챙겼다가 26일 구속 기소된 것.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회사 공채 시험 문제와 면접관 질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거나 산단 내 회사 간부 명의의 인사장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생계 침해형 범죄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COMBINE, TNGT, 20 AUDIO, Lafuma,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방점 110000 511-0249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실내의 습도도 자동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환기시스템

필드시스템 062)603-2752